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정답 및 해설(홀수형)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⑤ 14. ② 15. ② 16. ② 17. ⑤ 18. ① 19. ① 20. ④
 21. ③ 22. ③ 23. ③ 24. ② 25. ① 26. ③ 27. ⑤ 28. ②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⑤ 34. ③ 35. ② 36. ④ 37. ① 38. ⑤ 39. ③ 40. ①
 41. ④ 42. ① 43. ⑤ 44. ④ 45. ③

[1~5] 화법

[1~2]

1.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해설사는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진행자는 해설사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즉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와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해설사가 말한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대답을 하겠다며 대답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답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다. ② [B]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해설사에게 물었다. 또 해설사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③ [C]에서 해설사는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해설사가 이를 인용한 것은 진행자의 말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해서이다. ⑤ [E]에서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하지 않고 청취자에게 대답의 중요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권유하였다.

2. 말하기 목적 추론

정답해설 : 학생 1과 학생 2는 대답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대답의 핵심 내용은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잘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므로, 답사 홍보 포스터의 제목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2는 포스터 제목에 의인법을 활용했다고 했다.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이라는 제목은 대답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한산성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표현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답사의 목적에는 대답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답사 목적을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답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답사 포스터의 제목에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목에 의인법을 사용하지는 않

있고, 답사 목적도 대담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대담에서는 남한산성에 얽힌 향전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대담에서는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대담의 핵심 내용은 신라 시대의 축성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별 축성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3~5]

3.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연설에서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 도로 경기장이 노후화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로 출전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A시의 도로 경기장은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설에서는 주로 도로 경기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사이클 전용 경기장 내부 구조의 장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연설자는 대회 취지의 부합성, 대회 개최 여건, 대회 운영 능력과 관련하여 사이클 대회 개최지로 A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②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며, A시가 이런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음을 밝혔다. ③ 연설자는 “여러분처럼 저도 사이클을 사랑합니다.”를 통해 사이클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사이클 선수 출신인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였다. ④ 연설자는 선수로 출전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A시의 도로 경기장이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이 될 것임을 밝혔다.

4. 연설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먼저 대회 취지가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임을 밝혔다. 이는 대회 취지 부합성 면으로 볼 때는 약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설자는 이런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사이클에 대해 개최지 시민들과 개최지 인근 국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이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A시에의 대회 개최가 대회 취지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으로, 연설자는 대회 취지 부합성과 관련하여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오히려 장점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회 취지 부합성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전환하려 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연설자는 대회의 취지가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우호 증진이 대회 취지와 관련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 여건의 강점으로 시민의 지지율이 높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④ 연설자는 개최지 선정에 불공평성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는 대회 개최 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⑤ 연설자는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이클 강국이 아닌 곳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실에 대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연설자는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지만, A시는 90퍼센트가 넘는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밝혀 A시가 대회 개최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연설자는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런 연설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청중의 반박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연설자는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것처럼 A시가 각종 국제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③ 연설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④ 연설자가 해외 청소년 대상 사이클 프로그램 운영을 언급한 것은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A시의 노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가 A시의 지지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청중의 반응은 연설의 내용을 반박한 것이 아니라 연설의 내용에 공감한 것이다. ⑤ 연설자는 A시가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에 있는 도시라는 점은 언급했지만, A시에서 사이클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설자는 사이클에 대한 A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이클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6~10] 작문

[6~8]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개요의 'Ⅱ. 현재의 소비 생활'의 하위 항목 중 '㉠저렴한 가격의 제품 구매'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 구매 및 사용'은 '현재의 소비 생활'의 양상이나 경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원의 고갈'과 '㉣생산 및 유통,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은 현재의 소비 생활로 인해 나타나게 된 문제점 혹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Ⅱ의 내용을 '양상과 문제점'이라는 항목으로 제시하고, ㉠, ㉡은 '양상'의 하위 내용으로 ㉢, ㉣은 '문제점'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은 개략적인 수준에서 '현재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현황으로 볼 수도 있지만 ㉠~㉣ 중 '현재의 소비 생활'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 ㉡은 현재의 소비 생활의 양상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실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 ㉣은 현재의 소비 생활이 초래한 결과이자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원인이라는 항목의 하위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 중 '현재의 소비 생활'의 목적이나 필요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 중 '현재의 소비 생

활'과 관련한 대책이나 심각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7. 매체 활용의 효과

정답해설 : (나)의 ㉔, ㉕는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제시한 구체적 질문으로, ㉔는 앞서 전문가가 환경 친화적 소비를 돕는 제도로 소개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의 효과를 묻고 있다. 또 ㉕는 앞서 전문가가 환경 친화적 제품의 기대 효과를 설명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지의 구체적 종류를 묻는 질문이다. 따라서 ㉔, ㉕는 글의 주제인 '환경 친화를 우선시하는 소비 생활 촉구'와 관련하여 전문가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㉔, ㉕는 질문자가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제기한 질문으로, 전문가의 답변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㉔, ㉕에는 앞서 제시된 전문가의 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답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㉔는 앞서 전문가가 소개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의 효과를 묻는 질문이므로 전문가의 답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나)에는 예상 독자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㉔, ㉕ 모두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8.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나)의 내용 중 기업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기업의 환경 친화적 제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뿐이다. 따라서 (나)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제품 생산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다)에는 기업의 친환경적 제품 생산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에 부여하는 공인된 표지의 구체적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를 'Ⅲ-1-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과 관련하여 친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에는 ○○기업이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를 고려하여 동종 제품 중 최초로 환경 친화 제품임을 인정받아 환경 표지를 붙여 제품을 출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러한 환경 표지를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다)를 'Ⅲ-1-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환경 표지가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③ (나)에서,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해 공인된 표지를 부여하는 제도가 소비

자에게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환경 보전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Ⅲ-2-가. 소비자가 환경 보전에 참여함’이라는 항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다)에는 친환경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를 고려하여 ○○ 기업이 제품의 생산,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인 환경 친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Ⅲ-2-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에서 환경 친화적 소비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9~10]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학생의 초고에서는 ‘가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나무가 아름답다고 언급하였을 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스쳐 가자 어제까지 자신도 버스를 타고 오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는 내용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학생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학생은 나뭇잎을 보며 나뭇잎들의 빛깔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학생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내용 생성(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초고의 점검 내용에 따르면, 초고 마지막 부분의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출하고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초고 둘째 문단에는, 학생이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룬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점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빛깔로 이루어진 세상을 위해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는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빛깔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2문단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나의 고유한 빛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각자의 빛깔이라는 내용과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을 연결 지어 볼 수 있지만, 2문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2문단에는 다양한 빛깔들의 조화를 통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학생의 태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음운 환경에 따른 겹받침의 다양한 발음 방식을 제시한 뒤, 그에 따른 각 사례별 발음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닭하고’의 ‘닭’은 ㉞에 따라 [닥]으로 발음하며, 여기에 ‘하고’가 결합하면 ㉟에 따라 ‘ㄱ’과 ‘ㅎ’을 합쳐서 [ㅋ]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⑤는 ‘닭하고’의 발음에 적용된 내용과 발음이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경우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덟이’는 ‘여덟’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㉞에 따라 겹받침의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여덜비]로 발음해야 한다. ② ‘뭇을’은 ‘뭇’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을’이 결합한 경우이기 때문에 ㉞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㉞에서 ‘ㅅ’은 [ㅆ]로 발음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목슬이]가 아니라 [목쓸]로 발음해야 한다. ③ ‘흙만’의 ‘흙’은 ㉞에 따라 [흑]으로 발음하며, 여기에 ‘만’이 결합하면 ㉟에 따라 [흑만]이 아닌 [흥만]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값까지’의 ‘값’은 ㉞에 따라 [갑]으로 발음한다. 그런데 ㉞는 [ㄱ]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연결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까지’가 결합한 ‘값까지’의 발음은 ㉞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웃소매’와 ‘밥알’은 모두 합성어이지만 소리 나는 대로 ‘온쏘매’, ‘바발’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웃소매’와 ‘밥알’은 ㉡만 충족하는 합성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파리’는 ㉠의 사례가 되지만, ‘얼음’은 소리 나는 대로 ‘어름’으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이다. ② ‘마소’는 ㉡의 사례가 되지만, ‘낮잠’은 소리 나는 대로 ‘날잠’으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합성어이다. ③ ‘웃음’은 ㉡의 사례가 되지만, ‘바가지’는 어법에 맞도록 ‘박아지’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이다. ⑤ ‘꿈’은 ㉡의 사례가 되지만, ‘사랑니’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즉 ㉠만 충족하는 합성어이다.

13. 담화 내의 호칭어 및 지칭어 파악

정답해설 : 대화 상황 내에 사용되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를 묻는 문항이다. <보기>의 담화 상황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 ‘누나’는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지만 ㉡의 ‘영수’는 청자인 아들을 가리킨다.

정답 ㉡

[오답피하기] ㉠ ㉠ ‘엄마’와 ㉡ ‘누나’는 모두 청자인 아들(영수)의 관점에서 지칭어를 사용한 경우이다. ㉡ ㉡ ‘우리 아들’은 영수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 ㉡은 모두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과 ㉡의 ‘저거’는 모두 ‘저 옷 가게 광고판’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의 ‘오늘’과 ㉢의 ‘어제’는 모두 ‘2015년 12월 30일’의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부사와 조사로 쓰일 수 있는 ‘같이’와, ‘같이’와 ‘하다’가 결합한 ‘같이하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조사로 쓰이는 ‘같이㉠’은 ‘얼음장같이 차갑다’처럼 ‘앞말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새벽같이 떠나다’처럼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의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 쓰인 ‘같이’는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같이㉠’은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고, ‘같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 ‘㉡’라는 국어사전의 품사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같이하다’의 뜻풀이에 ‘같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같이하다’는 ‘같이’와 ‘하다’의 복합어로 볼 수 있다. ㉣ 문형 정보가 【(…과) …을】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같이하다’는 ‘~과’의 형태로 쓰이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전자의 용례이며, ‘그들은 견해를 같이했다.’는 후자의 용례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은’처럼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 ‘같이하다㉠ = 함께하다㉠’의 정보를 제시하는 점을 볼 때, ‘평생을 같이한’과 ‘평생을 함께한’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양한 유형의 비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에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정답 ㉡

[오답피하기] ㉠ ‘그는 이론을 발전해’라는 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유럽은 18세가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 ‘요점은’과 ‘알아야 한다’를 확인해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⑤ ‘이름의 혼동’과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16. 중세 국어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중세 국어의 문법적, 표기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仙人(선인)이’와 ㉡ ‘蓮花(연화)ㅣ’의 현대어 풀이가 ‘선인이’와 ‘연꽃이’임을 고려할 때, ‘이’와 ‘ㅣ’는 모두 주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라는 ㉡의 기술은 타당하지 않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체언의 끝소리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달리 실현되었는데, ‘선인’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이’가, ‘연화’는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어서 ‘ㅣ’가 결합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체언이 ‘ㅣ’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현대어 풀이가 ‘대사 하신 일’임을 고려할 때 ㉠의 ‘흐산’에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샤-’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현대어 풀이가 ‘남굴의 선인’임을 고려할 때 ㉢ ‘남굴스선인’의 ‘스’이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 ‘의’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과 ㉣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로는 모두 ‘에’이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세간애’와 ‘시절에’로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말의 끝모음 ‘ㅏ’, ‘ㅣ’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모음조화에 따른 결과이다. ⑤ ㉤ ‘쉽디’는 현대 국어에서는 ‘쉽지’로 실현되는데, ‘ㄷ → ㅈ’의 구개음화에 따른 결과이다.

[17~30] 독서

[17~20] 인문 -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지문해설 : 이 글은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도덕적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누고, 운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편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는 부정될 수 있으며,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로 국한한다면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의 차이

17.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2, 3, 4문단에서 ㉠은 그런 ‘도덕적 운’을 ‘태생적 운’, ‘상황적 운’, ‘결과적 운’으로 나눈 후,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 도덕적 운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는 5문단에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4문단에서 ㉠의 결과적 운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어떤 화가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나 ㉠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므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글쓴이는 모두 ‘상식’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으며, ‘상식’을 존중하는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도덕적 운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 후, 2, 3, 4문단에서 각각의 도덕적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서 도덕적 평가에 개입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5문단에서 글쓴이 역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글쓴이 모두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 3문단에서 ㉢은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반면,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니므로 도덕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 달리 글쓴이가 도덕적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18.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에 따르면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도덕적 평가가 가능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ㄴ’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리는 ‘강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ㄷ’은 글을 모르는 ‘무지’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를 찢으며 논 경우에 해당하므로 ‘ㄴ’과 ‘ㄷ’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ㄱ’과 ‘ㄹ’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익해 결정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1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도덕적 운(‘결과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성공 여부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비난받는 이유는 무책임한 행위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는 똑같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축구 선수이다. 그러나 A는 상대팀 골키퍼의 실수로 골을 넣은 반면, B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였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골을 넣지 못한 B는 골을 넣은 A에 비해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성품이 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6문단에서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와 같은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며, <보기>의 상황은 결과적 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A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우리의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의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은 같다고 하였으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보기>의 A와 B는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 동기가 같으므로 3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황적 운에 따라 똑같은 두 사람 중 누군가의 성품이 발현되기도,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4문단에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와 B는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 동기가 같으며 골을 넣었는지의 결과가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불공평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국한(局限)’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이다.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을 뜻하는 단어는 ‘적용(適用)’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기반(基盤)’의 사전적 의미는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이다. ② ‘거론(擧論)’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이다. ③ ‘개입(介入)’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이다. ⑤ ‘폄하(貶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이다.

[21-24] 사회 - ‘지식 경영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폴라니는 지식 경영론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나카는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해 지식 경영론을 펼쳤는데, 그는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노나카는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의 네 가지로 유형화했는데, 그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한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

21.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에 대해 소개하며, 지식에 대한 폴라니의 탐구를 실용적으로 응용한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 경영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지식 경영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지식이 분리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지식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에 대비되는 지식 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통해 지식 경영의 유용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지도 않다.

2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노나카는 ‘명시지’를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등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② 폴라니는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④ 노나카는 지식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 폴라니는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므로,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나카는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을 유형화했으므로,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했을 것이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C사의 직원이 경쟁 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들을 보고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하여 감각적 지식을 획득한 것은,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해 낸 것은,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개인의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가 전달되어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되는 ‘공동화’에 해당한다. ②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들을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연결화’에 해당한다. ④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을 통해 조종술에 능숙하게 된 것은,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내면화’에 해당한다. ⑤ E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에 동물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감지하고 장수하늘소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한 것은,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표출화’에 해당한다.

2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F사는 보고서와 제안서 등의 가시적인 지식(명시지)의 산출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경험적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암묵지)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제도는 갖추지 못하였다. 이미 가시적인 지식의 산출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보상한 바 있으므로,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고 형식화된 지식을 제안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창의적 아이디어와 같은 암묵지는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해 경험 많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마다 해당 부서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인 암묵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하면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애착과 헌신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⑤ 그간 명시지에 대해서만 보상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인 암묵지를 존중하고 명시지와 암묵지를 모두 평가하고 보상하도록 조직 문화와 동기 부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5~28] 사회,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벌인 프로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부가되는 '부관', 즉 '기한'과 '조건'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대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

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이므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이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경우에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툴 수 없다. ② (가)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의 경우 금전을 갚아 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갚기로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을 갚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28.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부가하다'는 '주된 것에 덧붙이다.'는 의미이므로 ㉞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 '수취하다'는 '거두어 모으다.', '받아서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는 의미의 '지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는 의미의 '발생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경유하다'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치다.'는 의미의 '경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29~30] 과학, '빛방울의 종단 속도'

지문해설 : 이 글은 어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자유 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중력, 부력, 항력)에 대해 설명한 다음, 물체의 낙하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해지는 '종단 속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항상 중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항력'은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빛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중력 때문에 낙하 속도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져 마침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져 가속도가 0이 되어 빛방울의 속도는 일정해진다.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종단 속도라 한다.

[주제]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중력, 부력, 항력)과 종단 속도

29. 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부력'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의 부력은 동전의 부피만큼의 액체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 동전이 낙하하는 액체

의 밀도는 균일하다고 했으므로,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낙하 위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항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힘으로 부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낙하 운동할 때에는 압력 항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마찰 항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 ② 2문단에 따르면,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압력 항력(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의해 생기는 항력)이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한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종단 속도는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속도라고 하였으므로, 종단 속도일 때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1문단에서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하였으므로,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잠긴 쇠 막대의 부력은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0.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므로 상승 운동하는 물체의 항력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위 방향으로 작용한다.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이때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면 '부력=중력+항력'이 된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의 B의 부력은 공기 중에서의 B의 부력보다 더 크다. 두 경우 모두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력=중력+항력'인데,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의 부력이 더 크므로 항력 역시 더 크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항력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되어 있는 두 물체의 항력을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에서 물체 A, B의 부피는 같으므로 각각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물체의 밀도는 B가 A보다 크다고 하였으므로, 각각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부력과 중력의 차이(부력-중력)가 진행 속도를 결정하므로, 물체의 상승 진행 속도는 A가 B보다 크다. 물체의 진행 속도에 따라 커지는 항력 역시 A가 B보다 크다. ③ 1문단에서 중력은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며, 부력은 물체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로 결정된다고 하였으므로, 물체의 고정/운동 여부는 중력과 부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A, B가 일정해진 속도(종단 속도)에 도달하는 것은, 처음에 부력 때문에 물체의 상승 속도가 증가하지만, 이에 따라 항력도 커지게 되어 마침내 항력과 중력의 합이 부력의 크기와 같아지기 때문이다. 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종단 속도)에 도달한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33] 현대소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작품해설 :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적지 않은 소시민들은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작품의 '권 씨'는 이러한 사회 상황이 낳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권 씨'는 선량한 소시민으로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나, 결국 생활고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아홉 켄레의 구두만을 남겨 놓은 채 사라진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패배한 권 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에 대한 연민

3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의 부인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 '나'의 아내는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임신부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 주고 난 후 아내가 '생병'을 앓은 이유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하여 못마땅한 사내(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과심해서이다. ② '권 씨'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엿그제까지' 권 씨가 여간내기가 아니라고 아내가 속삭이기는 하였으나,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뜸해 준 것이다. ⑤ '권 씨'가 '나'의 염려에 대해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장면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아내'의 월망이 누그러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2.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에서는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아내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나'가 꾸 꿈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에서 서술자는 '권 씨' 부부가 사태를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 부부의 내면 심리나 의도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④ ㉣과 ㉤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서술자 '나'의 심리적 갈등이다. '권 씨' 부부와 외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에는 출산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최악의 선까지 몰려가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불안과 염려가 드러나 있으므로, ㉣과 ㉤에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

이 드러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출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가 ‘권 씨네’를 염려하는 모습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일면 공동체의 유대감의 표현이기는 하나, ‘권 선생네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로 표현되는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해서’를 공동체의 유대감 회복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대한 거리두기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소설에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괘씸해하는 ‘아내’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해산을 맞이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4-36] 극 - 채만식 ‘제향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할머니 ‘최 씨’가 외손자 영수에게 남편과 자식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학 혁명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김성배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김영수의 이야기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했던 가족의 수난사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수난으로 확대되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건네준 이야기로 비유된다. 투쟁의 결과 김성배와 김영수는 불행을 겪었고, 불을 전해 준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작가가 주목한 것은 투쟁의 비극적 결말이 아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상인의 앞날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 부정적 세력에 대한 투쟁과 부조리한 시대를 개선하려는 부단한 저항 의지

34.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네 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 씨는 과거의 사건을 손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은 “그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이라고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한 최 씨의 답변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외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내

용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서 동학당원의 가족과 병졸들의 대립은 확인할 수 있지만 최 씨와 영호의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과 ㉡에는 동학당원과 그들을 처형하려는 관원들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에 대해 전경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영오는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데 있었수?”라고 묻고 있으며, ㉡에서 최 씨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묻는 영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따라서 영오가 최 씨의 대답을 듣고 있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올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웬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최 씨는 ㉠과 ㉡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3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은 과거 처형장의 장면에서 극중 현재인 제향날로 장면을 교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극중 상황에서 최 씨와 자신의 시어머니인 김성배의 모친은 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암전’은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막을 여닫지 않은 상태에서 장면을 전환할 수 있다. ③ ㉢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무대 상황 및 등장인물의 변화를 줄 시간이 필요하다. ④ ㉣ 직전은 처형 전의 장면에 해당하며 ㉤ 직후는 처형 후의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장면은 시간의 순차성을 가지고 연결된다. ⑤ ㉥ 직전은 처형장으로 가기 전의 공간에 해당하고 ㉦ 직후는 처형장에서의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장면은 동일 공간이 아니지만 처형과 관련되어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자작 안내」에서 밝혔듯이 작가는 동학과 3·1운동에 관련된 최 씨 가족의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조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와 지문을 통해 처형장에 나가지 못한 채 올타리 구멍으로 남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최 씨의 모습을 신중한 대응이라고 비판하려는 작가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독자가 시대적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작중 상황을 전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가는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거 상황을 모르는 손자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상황을 겪었던 최 씨가 대답하는 구조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② 작가는 최 씨로 하여금 어린 손자에게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들려주게 함으로써 그들의 제삿날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독자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작가는 최 씨 가족이 겪은 사건을 정기정 재판과 위력적인 관부의 모습과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극의 소재를 개인적 차원인 아닌 역사적 차원으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⑤ 작가는 강자의 횡포와 관련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일제 강점기

를 살고 있는 1937년의 독자가 읽게 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게 하려는 창작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37-39] 고전소설 - 작가 미상, '토끼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수궁에 가면 호의호식하며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권력층의 무도함에 대처하는 서민의 발랄한 재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용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용왕의 명을 받아 육지로 나온 자라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뻔한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종략 이후의 내용에서는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의 토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자라에게 복수하려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주제]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37.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육지에 나온 자라가 호랑이를 만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라는 백호를 죽여 달라며 하늘에 빌다가 “일사면 도무사라. 무이불식이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호랑이를 위협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설혹 죽더라도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한번 대항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자라에게 느닷없이 앞턱을 물린 호랑이는 일단 주춤한 상태이며, 그 상황에서 움츠렸던 목을 길게 뻗 자라의 모습은 갑옷을 잘 갖추어 입고 총을 빼든 것처럼 느껴져 호랑이는 겁을 먹고 있다.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낌새를 알고’를 통해 자라를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③ 자라가 ‘도로랑 귀신’ 운운하며 겁을 주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물똥을 싸고 도망간다. 겨우 자라에게서 도망친 후,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장담하는 “내 재주 아니런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라는 말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끼가 “낌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범치가 춤을 추는 토끼를 보다가 “뺏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했기 때문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자칫 낭패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한 것이다. ⑤ 별주부 자라는 잔치에서 범치의 말을 듣고 토끼를 질책하며 대왕을 속이려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토끼가 분한 마음을 품고 왕배탕 얘기를 용왕에게 하여 결국 자라 대신 자라의 부인이 죽게 된 상황이다. 자라는 경솔한 말로 인해 음해를 당한 것에 대해 부인에게 얘기하며 토끼에게 용서를 빌자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8. 구절의 표현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은 별주부 자라가 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끼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용서를 비는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치우고’, ‘배설하여’, ‘앉히고’, ‘애걸하는’ 등 부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 드러나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① ‘못 보겠네’의 반복, ‘나의 충성 부족던가’와 ‘나의 정성 부족던가’의 대구를 통해 용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자신의 팔자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②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뚝’,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의 의미인 ‘빙빙’,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치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찧꺨’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자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③ 패왕이 달아나는 모습, 조조가 도망하는 모습, 북풍을 타고 구름이 빠르게 가는 모습, 편전살(화살)이 날아가는 모습, 조총의 탄환이 나는 모습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호랑이의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으면 좋은 활이 숨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공이 있는 자라를 죽이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자라의 공격을 내세워 암자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왕이 베푼 잔치에서 토끼가 춤을 추는데, 용궁의 대장인 범치가 토끼의 옆에서 “토끼 뺨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하자 별주부가 그 말을 거들면서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하거든 네 저러한 꾀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라며 꾸짖는다. 이는 토끼에게 불리한 내용인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화제로 삼아 상대를 공박하려는 것으로, 토끼를 회유하거나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①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등 호랑이에게 자신의 근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호랑이가 모르는 자신의 근본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② “별나리, 별나리, 그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는 호랑이의 말은 자라 별자를 알아듣지 못한 무식의 소치로, 별나리를 무서워하는 호랑이의 반응을 보며 자라는 큰소리를 치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④ 범치와 자라가 토끼의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자 토끼는 놀라면서도 한편 자신을 해치려는 자라에게 분노하여 원기회복을 위해 왕배탕을 먼저 먹은 후 자신의 간을 쓰면 효과가 좋으리라고 용왕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⑤ 별주부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자, 토끼는 자신을 용궁으로 유인한 과거의 잘못을 따지며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40~42] 고전시가 - (가) 정철, '어와 동량재를~' / (나)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작품해설 : (가)는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만을 일삼으며 나라의 인재들을 모함하고 내치던 세태를 풍자한 시조이다. '동량재'는 나라의 유능한 인재가 가리키고, '못 목수'는 당쟁을 일삼는 무능한 정치가, '기운 집'은 위태로운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주제] 조정의 혼란 속에서 인재를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나)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겪은 뒤 명신 이원익이 지은 가사로 알려져 있다. 허전이 지은 '고공가'에 화답한 가사로 '고공답가(雇工答歌)'라고도 한다. 허전의 '고공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관리들을 대가집의 머슴들에 비유하여 주인의 무너진 살림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도 다하지 않는 머슴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나태하고도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4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에서 연쇄의 표현 기법이 쓰였고, (나)의 3-4행에서는 '뉘라셔 곳쳐'가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는 연쇄와 반복의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3-4행, '뉘라셔 곳쳐이며', '뉘라셔 곳쳐 쓸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동량재(나라의 인재)', '기운 집(어려운 지경에 놓인 나라)' 등 직유가 아닌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옥 곱튼 얼굴'과 같은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가)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마누라(임금)'가 새끼를 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서둘러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끼 꼬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로 본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이어지는 구절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사릴/꺼릴 뿐이로다)'로 볼 때, '바깥 마름'이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② '불한당 구멍 도적'이 멀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을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③ 화자는 임금이 하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니 주인'을 설득의 대상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⑤ 화자는 주인이 '상벌'을 밝게 하기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벌'을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는 ‘동량재’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한탄하고 있고, (나)에서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이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는 ‘기운 집’을 바로세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하인들(신하들)과 주인(임금)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위험에 놓여 있지만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워야 할 나라를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의논’은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전개되는 당쟁을 꼬집는 말이므로, 국가 대사를 위한 대책인 (나)의 ‘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관심은 많으나 당쟁을 일삼는 이들을 가리키고, (나)의 ‘험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무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⑤ (가)의 여러 목수들은 ‘고자 자’를 들고 입씨름만 하고 있을 뿐 집을 바로 세울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의 ‘문혀진 담’은 위험에 빠진 국가를 가리킨다. ‘고자 자’와 ‘문혀진 담’이 외세의 침입에 협조한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3-45] 현대시 -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1’ /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해설 : (가)는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오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일상의 섭리를, 모체(母體)인 어둠이 사물을 잉태하고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며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여기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 더해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를 느끼며 존재하던 물상들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다양한 동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이미지로 아침이 밝아온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개벽과도 같은 사건처럼 독특하고 신선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나)는 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서 벗어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접하게 된 화자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연의 평온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의 환경들과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인공적인 삶 속에서 원초적인 쾌락에 몸을 내맡겨 버린 자신의 삶에 대

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까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풀벌레들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기울여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풀벌레 소리로 인한 삶에 대한 성찰

4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둠이 물상들을 품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면서 비로소 어둠을 접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는 상태의 지속이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이 벌레 소리들로 환해지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점점 밝아오는 태양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만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려 아침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물들의 몸부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움직임에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온갖 물상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아침의 모습을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물상들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감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5.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그 인식을 확대하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쳐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풀벌레 소리를 통해 환함을 느끼게 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쉬는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